

1643년 계미사행을 전후한 화원 이기룡의 행적 및 활동

이 정 은*

| 목 차 |

- I. 머리말
- II. 사행 이전 활동
- III. 사행 당시 남긴 이기룡 관련 기록
- IV. 사행 이후 행적 및 활동
- V. 맺음말

| 국문초록 |

화원 이기룡(李起龍, 1600~?)은 계미사행(癸未使行, 1643)의 수행화원(隨行畫員)이다. 계미사행은 조선회화 또는 수행화원의 그림에 대한 일본 측의 요구가 폭증하면서 수행화원의 역할과 입지에도 변화가 나타난 사행이었다. 사실 계미사행부터는 통신사의 성격이 정치·군사적 면보다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측면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행화원의 활동 역시 본격화되었다. 조·일간 문화교류사의 측면에서 조선통신사를 연구한다고 할 때, 수행화원의 역할과 활약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룡의 사행 기록은 물론이고 국내활동에 대한 기록도 소략하여 그의 연구는 입체적으로 이뤄지지

* 범어사 정보박물관 / ciraz@hanmil.net.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이기룡의 계미사행 활동을 중심으로 전후 활동을 고찰해보았다.

병자사행에 이어 이기룡이 파견된 계미사행 당시 일본 화단은 선화가 일대 유행이었다. 선화로 인해 병자사행에 이어 방일한 김명국과는 달리 그의 선화는 알려진 작품이 없다. 선화를 그려 남긴 김명국과는 달리 선화 한 점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파견된 두 명의 화원의 역할과 활동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점이다. 수행화원으로서 일본측 구청에 응하는 그림을 그려 남긴 김명국은 그의 활동 이력이 고스란히 기록물을 통해 전하는 반면 이기룡의 활동은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정묘호란(인조 5)과 병자호란(인조 14)을 겪은 조선이 대외활동에서 상대국의 군사정보를 그림으로 기록하고자 했던 바를 이기룡이 비밀리에 수행했던 바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추측은 이기룡이, 이흥규를 이은 화원 가문인 점과 사행 이전 1638년 『인조장렬후가례반차도』를 제작하는 데 인조가 아꼈던 이징(李澄, 1581~?)과 함께 참여한 점 등에서 미뤄볼 수 있다. 그의 현존하는 일본사행 작품은 말 그림으로 당시 긴박했던 사행과는 동떨어지면서도, 국내 의례 활동에서 볼 수 있는 세밀한 묘사가 두드러진 것을 미뤄보아서 사행 이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즉 해당 작품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사전 제작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무게를 두었다. 단독으로 참여한 1631년 『선조목릉천장산릉도 감의례』의 사신도와 비교하면 정교한 필치와 안정적인 구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기룡은 다른 화차에 파견된 수행화원들과 마찬가지로 사행 이후에 활발한 국내활동을 이어간 화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부친과 가문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그런데 이기룡의 아들 이형정의 공적·사적 활동 기록이 전무한 점과 1661년 의례 참여를 마지막으로 공적 활동이 없는 점 등은 이후 가문의 세력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한 개인의 화가로서보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원이라는 공적 입장에 있었고, 그의 활약도 그런 범주 내에서 평가되어 왔다. 개인 작품이 현존하지 않는 수행화원 이기룡의 행적 범주를 좀 더 확산시켜 그의 가문적 배경과 도화서 내에서의 활약까지 두루 조망해 봄으로써 수행화원 이전과 이후의 내·외연적 활동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 이기룡, 계미사행, 조선통신사, 수행화원, 도화서, 의례, 이흥규, 김명국

I. 머리말

화원 이기룡(李起龍, 1600~?)은 계미사행(癸未使行, 1643)의 수행화원(隨行畫員)이다. 계미사행은 조선화 또는 수행화원의 그림에 대한 일본 측의 요구가 폭증하면서 수행화원의 역할과 입지에도 변화가 나타난 사행이었다. 사실 계미사행부터는 통신사의 성격이 정치·군사적 면보다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측면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행화원의 활동 역시 본격적으로 중시되었다. 즉 전반적으로 외교·군사적 측면이 강조되었던 초기 조선통신사행부터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던 후기 통신사행에 이르기까지 수행화원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왔다. 그러므로 조·일간 문화교류사의 측면에서 조선통신사를 연구한다고 할 때, 수행화원의 역할과 활약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원(一員)이었던 이기룡의 경우, 사행 기록은 물론이고 국내활동에 대한 기록도 소략하여 해당 연구가 입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이기룡의 계미사행 활동을 중심으로 전후 활동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간 진행되어온 통신사 수행화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교류사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홍선표·서윤정·유근형·정은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수행화원 인물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정미사행(丁未使行, 1607) 이홍규(李泓岬, 1568~?)·병자·계미사행(癸未使行, 1636·1643) 김명국(金明國, ?~?)·을미사행(乙未使行, 1655) 한시각(韓時覺, 1621~?)·이성린(李聖麟, 1718~1777)·무진사행(戊辰使行, 1748) 김유성(金有聲, 1725~1775 이후)·신미사행(辛未使行, 1811) 이의양(李義養, 1768~?) 등이 진행되었을 뿐, 초기사행의 화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¹⁾

1) 이태호, 『韓時覺의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 정선 眞景山水의 先例로서 17세

초기 수행화원 연구는 이후 수행화원 연구와 연결선상에 있다. 정미 사행 수행화원 이홍규와 계미사행(1643)의 이기룡이 그 시작점에 있다 할 것이다. 이미 진행된 이홍규의 연구에 이어 입체적 시각을 위해 우선 그의 아들 이기룡은 연구가 필요한 화원이다.

이기룡은 계미사행의 또 다른 수행화원 김명국과 비교해 사행록에 기록된 자료가 소략하다. 소략한 자료를 보완키 위해 화원의 공적인 행사참여기록인 의궤에 나타난 활동으로 이기룡을 연구코자 한다. 의궤 기록은 사행 이전과 이후 모두 나타나지만, 이 중 사행 이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기룡의 행적과 활약을 역추적 하여 사행이 그의 화원활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의 實景圖, 『精神文化研究』 3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이건설,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 雪灘 韓時覺의 實景山水畫」, 國立中央博物館, 1993. 홍선표, 「조선후기 通信使 隨行畫員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 205, 한국미술사학회, 1995;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활동」, 『미술사논단』 6, 한국미술연구소, 1998. 권혜은, 「朝鮮後期《槎路勝區圖畫集》의 作者와 畫風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서윤정, 「1764년 通信使의 繪畫活動과 그 交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유근형, 「朝鮮時代 南畫가 近代美術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경화, 「北塞宣恩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254, 한국미술사학회, 2007. 이현주, 「한류의 시초: 朝鮮通信使 隨行畫員 李聖麟의 사로승구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 2008. 황은영, 「1811년 신말통신사 수행화원 이의양에 대하여」, 『강원사학』 22-23, 2008. 이정은, 「朝鮮通信使 隨行畫員 研究」,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나영, 「서암 김유성의 회화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정은, 「金明國의 丙子·癸未通信使行 활동작품 분석」, 『인문논총』 27, 2011; 「乙未通信使行 隨行畫員 韓時覺의 行蹟 및 活動」, 『조선통신사연구』 12, 2011. 정은주, 「계미(1763)통신사행의 화원 활동 연구」, 『정신문화연구』 34권 2호 통권 123호, 2011. 위순선, 「다니 분초[谷文晁](1763~1840)를 做한 이의양의 산수화」, 『조선통신사연구』 19, 2015. 이정은, 「정미사행을 전후한 화원 이홍규의 행적 및 활동」, 『문물연구』 28, 2015. 정은주,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 교류」, 『동아시아 문화연구』 60, 2015; 「19世紀 初 對淸使行과 燕行圖: 《李信園寫生帖》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3, 2015.

II. 사행 이전 활동

본 장에서는 통신사 수행화원 이기룡의 생애와 국내에서의 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록이나 그림 등 전하는 자료가 워낙 부족해서 그의 삶을 조망하는 것이 거의 수월치 않다. 그러나 부분이라도 현전 자료를 통해 가계 중심으로 추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행 참여 전후의 행적을 중심으로 살피되, 특히 도화서 화원으로서 의궤제작에 참여한 부분에 관해서는 IV장에서 별도로 거론하기로 하겠다.

화원에게 있어 통신사행 참여는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자신의 이름을 국외에 떨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화원들은 수행화원으로 선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곤 했고 그런 만큼 수행화원에 선발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화서의 여러 화원들 가운데 통신사 수행화원을 선발하는 일은 앞에서 밝힌 품계나 연령 외에 다른 요인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곧 그들의 집안배경이 묵시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짐작된다.

가문의 형성은 16세기부터 서서히 나타나는 현상이었지만, 화원가문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숙종 시대 이후 도화서 확장과 더불어 화원을 대거 선발하면서부터이다.²⁾

이기룡 또한 화원가문을 형성한 부친 이홍규의 영향으로 가업을 이어 도화서 화원이 되었다. 이기룡이 도화서 화원으로서 의궤제작에 참여한 시기는 이홍규가 수행화원으로 다녀온 이후인 것으로 포착된다.³⁾ 이기룡이 도화서 화원이 되고, 또 의궤제작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부친과 가문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2) 안휘준, 『朝鮮時代의 畫員』, 『韓國文化』 9, 1989, 156쪽.

3) 이정은, 앞의 논문, 2015, 87쪽.

정미사행 파견 40년 전, 이홍규는 1568년 화원 이수형(李壽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조선중기를 대표하는 경주(慶州) 李氏 화원가문으로 화원가의 형성은 증조부인 이명수(李明修, 1490~?)로부터 시작됐다. 이명수는 두 아들 이정근(李正根, 1532~?)과 이정식(李正植, ?~?)을 비롯하여 화원 유징(柳澄, ?~?)과 사돈을 맺어 화원가문을 확장했다. 이명수의 아들 이정근은 부친에 이어 본인과 후손까지 화원가문으로 대를 이어갔다. 정미사행의 수행화원 이홍규는 이정근의 손자이다. 이정근은 화원가문이 중심인 본인 집안에서 장남 이수원보다 차남 이수형을 중심에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정작 이수형의 화원 활동은 알려진 바가 없고, 이정근의 동생이자 이수형의 숙부인 이정식과 숙부의 아들 이성복(李成福, ?~?)의 화원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아 이수형은 본인혈족으로 화원가문을 잇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아들 이홍규의 성장을 도왔을 것이며, 이를 위해 본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이홍규를 정미사행의 수행화원으로 발탁하게 된 이유를 마련했을 것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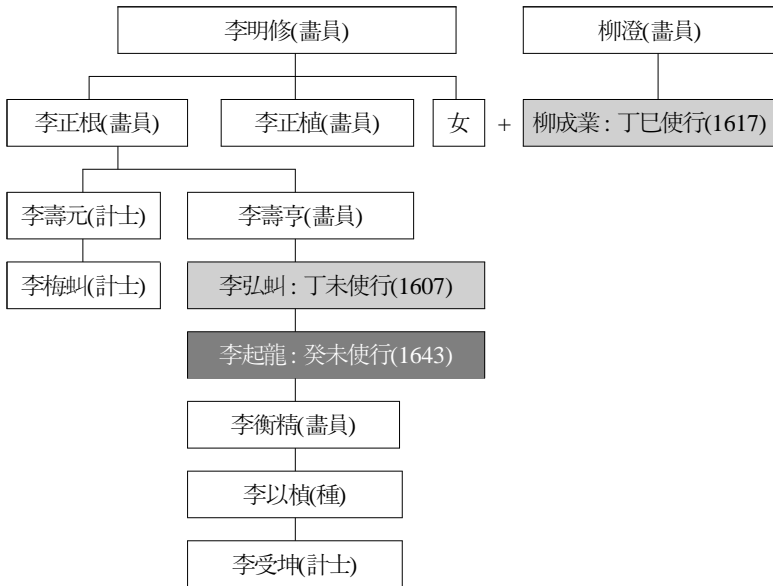
이기룡은 1600년 경자(庚子)생으로 자(字)는 군서(君瑞), 호(號)는 궤은(几隱)·동비야인(東鄙野人)을 사용하였다. 이기룡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정미사행(1607) 수행화원 이홍규의 아들로 명기(明記)되어있다. 정미사행 이홍규 가계에서 잠시 살았던 가계를 이기룡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자.

<표 1>를 보면 이기룡은 고조부 이명수를 시초로 하여 이기룡의 아들 이형정(李衡精)까지 무려 6대를 이어온 화원가문이다. 이기룡은 임란이후 재개된 정미사행의 수행화원 이홍규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은 사행이후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했던 화원이고 이러한 이홍규의 입지

4) 이정은, 위의 논문, 2015, 76쪽.

가 다음의 통신사행에 유성업을 참여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며, 이후 이기룡이 다시 통신사행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기룡 이후 이들 가문의 향방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표 1> 畫員 李起龍의 가계도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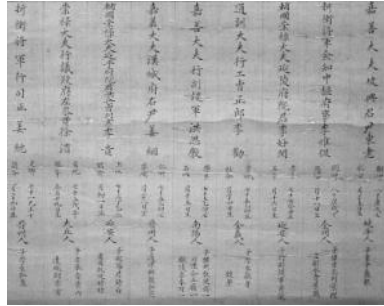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 전하는 이기룡의 작품은 <남지기회회도(南池耆老會圖)>(보물 제866호)가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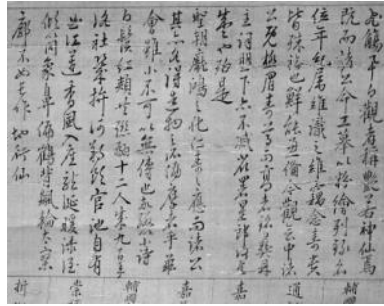
5) 이정은, 앞의 논문, 2009, 51쪽 <표11>. 안휘준, 『韓國繪畫史研究』, 시공사, 2000, 754쪽 <표 5>를 참조하여 吳世昌, 『槿城書畫徵』, 시공사, 1998, 543쪽. 중앙일보사, 『한국의 미-山水畫(上)』, 중앙일보사, 1985, 198쪽 참조.



<그림 1> 이기룡, 1629, <남지기로회도>, 비단에 채색, 116.6×72.4cm, 서울대학교박물관소장



<그림 1-1> 참석명단



<그림 1-2> 장유의 시

이 그림은 1629년 음력 6월 5일 승례문 앞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의 관료들이 사모임을 가진 뒤, 이를 기념하여 그린 것이다. 상단에 회화식 전서로 ‘남지기로회도’라고 쓰고 그림 아래로 장유(張維)의 기문(記文)이 있다.6) 좌우로는 비단에 덧대어 쓴 이경직(李景稷)의 서문이 있으며, 서문과 기문 아래에는 이경석(李景奭)이 기록한 계원들의 관직, 성명, 자(字), 호(號), 생년월일, 본관과 함께 참석한 자제들의 관직, 성명 등이

6) 장유의 시는 다음과 같다: 흰수염에 붉은 얼굴 날렵 한거동 / 열한분의 연세 팔백년을 이루었네 / 낙사의 하사음 어찌 셀 수 있으랴만 / 곡강지의 연꽃모임 또 다른 뜻이 있지 / 연꽃향기 술술 통연 인듯 애애하고 / 코끼리 코 기울여 술을 잔뜩 따르 누나 / 표거 타고 화상선으로 하늘에서 놀기보단 / 영원히 지행선으로 시는게 더 좋으리 / 승정기 사년 여름길일, 덕수장유가 삼가쓰다.

기록된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작(官爵)보다 연치(年齒)를 우선하였다. 이에 송계(松溪) 이인기(李麟奇)옹이 81세로 가장 나이가 많아 상석에 앉았고, 다음 파흥군(坡興君) 윤동로(尹東老)·침지(僉知) 이유간(李惟侃)은 모두 80세이고, 다음 연릉군(延陵君) 이호민(李好閔)은 77세이고, 다음 정랑(正郎) 이권(李勸)·동지(同知) 홍사효(洪思黶)·우윤(右尹) 장인(姜綱)은 모두 75세이고, 다음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는 73세이고, 다음 참찬(參贊) 서성(徐省)은 72세이고, 다음 침지(僉知) 강담(姜統)·좌윤(左尹) 유순익(柳舜翼)은 모두 71세이다. 청평(靑平) 심논(沈倫)은 68세로 가장 나이가 어려 제공들 사이에 낄 수 없었는데도 모임에 참여하였으니, 당송(唐宋)시대 백居易(白居易)의 구로회(九老會)를 모방한 고사(故事)가 있기 때문이다.⁷⁾

제목과 장유(張維)의 시 사이에는 모임의 장소와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기룡의 그림이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연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를 비롯해서 남지, 승례문, 도성을 기록적으로 그려 넣었다.⁸⁾ 중심 주제는 세 가지로 변화를 주어 묘사하였다. 먼저 사실적인 표현의 버드나무, 상반되는 연꽃 패턴의 구성, 그리고 민화적으로 표현된 구름에 떠있는 집의 단면이 눈에 들어온다. 기록화에 충실한 전개형과 주제 중심을 그림의 틀로 삼고 세 가지 표현방법이 적용되었다. 첫째, 입체적 묘사이다. 두 그루씩 짝을 지은 버드나무의 가는 가지와 무겁게 자리한 풍성한 잎은 실제 물가에 자리한 버드나무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소재는 아래에

7) 在會十二公 自七十一世 至八十一歲 唯靑平沈公 少七十者 二歲用狄兼暮故事與焉 今年六月五日 積雨乍晴 諸公聯鑣並輿來會于崇禮門外洪僉樞第 共賞官池荷花 座間序年不序官 鶴髮童顏 飛觴舉白 觀者稱艷 若神仙焉 既而諸公命工摹以粉繪 列錄各位年紀 屬維識之 維竊念 壽貴皆殊福也 鮮能兼備 今觀會中諸公 既極眉壽之尊 而高者銘彝鼎主詞盟 下亦不減省署星郎皇 何其盛也 殆是聖朝龐鴻之化 仁壽之應 而諸公其亦各得造物之所偏厚者乎 茲會雖小 不可以無傳也 敬綴以小詩 白髮紅顏共聯翩 十七二人來九百年 洛社幾拚河朔飲 官池自有曲江蓮 香風入座龍涎暖 淥酒傾筒衆鼻扁 鶴背飄輪太寥廓 不如長作地行仙 崇禎己巳季夏之吉 德水張維謹題。

8) 송희경, 『조선 후기 아회도』, 다할미디어, 2008, 285쪽.

서 언급할 이기룡의 사행당시 작품 <야마도>(일본, 쇼코쿠지 지쇼인(相國寺 慈照院) 소장)에서도 등장하는 것으로 미뤄보아 이기룡이 버드나무 그림에는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버드나무는 청초의 《개자원화보(芥子園畫譜)》에 실려 있는 버드나무와 상당부분 흡사하다. 그런데 그림이 그려진 1629년에는 《개자원화보》가 제작되지 않았고 1603년 제작된 명대의 《고씨화보(顧氏畫譜)》 편에 무게가 실린다.⁹⁾ 그러나 버드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서식하는 나무로 3국의 그림에서 손쉽게 만나게 되는 수종(樹種)으로 직접 사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도식적이고 평면적인 표현이다. 이는 그림의 중앙을 차지하는 연꽃 밭에서 두드러진다. 연꽃 밭으로 이름 붙이기에 다소 빈약한 푸른 점과 같은 연잎과 그 뒤로 살며시 보이는 연분홍 연꽃들이 모두이다. 연꽃이 반쯤 가려진 표현은 상단에 위치한 인물들 중심의 시각에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기인지 구름인지 꿈속인지 모를 건물의 외각선과 과감히 생략한 가옥의 형태이다. 집의 단면을 통해 참석자와 참석자의 자리배치를 보여주고 방석이 놓은 빈자리를 통해 모임의 진행사항을 다양하게 유추할 수 있게 그려놓았다. 그림은 팔작지붕아래 측면 3칸과 양쪽의 2칸을 적용해서 정면5칸을 알려주고 있다. 팔작지붕은 측면을 정면화 하였고 그 아래의 내부는 다시 전개형으로 펼쳤다. 가옥에서 실제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팔작지붕이 정면으로 보이는 측면의 대청마루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629년에 제작된 이기룡의 기록화는 19세기에 유행한 민화 구운몽의 가옥표현을 넘어선 획기적인 구성이며, 20세기 큐비즘의 대가 피카소도 놀랄 17세기 조선의 그림이다.

이기룡의 사행 이전 국내활동을 <남지기로회도> 단 한 작품으로는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당시로는 회원가문에서 수학한 회원의

9) 『개자원화보대전』, 『수보(樹譜)』, 통문관, 1970, 97~98, 101쪽의 버드나무.

작품으로 미뤄보기에는 인상적인 작품이다. 19세기 유럽 사진기의 등장과 함께 이젤, 튜브물감이 가져온 혁명적인 시기를 겪은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17세기 조선인 이기룡의 작품은 보는 이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할 1631년 참여한 의궤 <선조 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宣祖穆陵遷葬山陵都監儀軌)>의 사신도를 보면 2년 사이 이기룡 작품세계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하게 된다. 선대의 그림을 답습하는 의궤의 특성이 있어 의궤를 통해 작품세계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이기룡이 단독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그림 4점은 을 볼 수 있고 보편적인 화원의 그림을 만나게 된다. 이후 계미사행 5년 전인 1638년은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에서 1방과 3방에 모두 소속되어 왕성한 활동을 한 이력이 남아 있다. 틀에 박힌 그림 양식을 벗어난 이기룡의 사행 이전 그림은 현대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당시 국가를 대표하여 사행에 선발된 과정에서 적극적인 그의 가문의 영향력이 발휘되었을 것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일본의 요청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김명국과 함께 2명의 공식화원이 파견된 점 등은 이기룡의 사적(私的) 작품 활동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Ⅲ. 사행 당시 남긴 이기룡 관련 기록

이기룡의 사행 관련 기록은 『해행총재』 외에도 『춘관지(春官志)』에서 확인된다. “인조 21년(1643) 사행 때에는 일본의 요청에 의하여 인조 14년(1636)에 파견된 김명국이 이기룡과 함께 파견되었다.”¹⁰⁾는 기록이다. 그런데 이 내용 외에는 이기룡의 수행화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상

10) 『春官志』 卷2 <<通信三使及一行員役>> <<通信使謄錄 第1冊 癸未2月>>

제한 기록물이 없어 구체적인 활약상을 알 수는 없다. 다만 함께 선발된 김명국의 활동과는 다른 행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김명국은 병자사행의 활약을 계기로 일본 측에서는 조선화 또는 수행화원의 그림에 대한 요구가 폭증되었던 인물이며 이로 인해 수행화원의 역할과 입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사실 이후 사행부터는 통신사의 성격이 정치·군사적 면보다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측면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행화원의 활동 역시 본격화되었다. 이기룡은 김명국과 함께 수행화원으로 차출된 화원으로 그의 나이 만43세에 사행활동을 다녀왔다.

문화사절로 그 의미가 짙어진 1643년 계미사행 이후는 40대 화원이 사행에 선발된 비율이 높아졌다.¹¹⁾ 이는 대물림으로 이어진 화원가문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기룡 역시 부친 이홍규에 이어 사행을 다녀온 인물로 먼저 그의 유작을 살펴보겠다.

그의 대표적 작품은 말 두 필과 버드나무를 그린<야마도>이다. 이 작품은 쇼코쿠지 지쇼인 소장으로 꽤 폭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쇼코쿠지 지쇼인에는 다수의 조선통신사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2008년에는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도록시리즈Ⅳ』로 출간하기도 했다.¹²⁾ 소장 작품은 괴원(槐園) 변지한(下持漢, ?~?)의 그림 <화지(花枝)>, <강상귀범(江上歸帆)>, <은거도(隱居圖)> 등을 비롯해 선면화(扇面畵)도 여럿 소장되어 있고 명당(明堂)의 <묵죽도>, 노포(老圃)의 <새우도> 등이다. 이들은 조선시대 활동이력은 물론이고 생몰년 또한 미상의 인물들이다. 그나마 알려진 화가의 작품으로는 조선 후기 동래부에서 활동한 무임이자 지방 화사 송암 이시눌의 <죽호도>와 <매>가 전부이다.

11) 이정은, 앞의 논문, 2009, 9쪽, <표2> 隨行畫員의 使行時 年齡 참조.

12)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교코쿠지 지쇼인 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도록시리즈Ⅳ), 2008.



<그림 2> 이기룡, <야마도>, 52.3×34.7cm, 지본묵서, 일본, 쇼코쿠지 지쇼인(相國寺 慈照院) 소장

이와는 달리 이기룡의 작품은 유독 정성스럽게 제작되어 사전제작을 의심하게 한다. 말은 사람에게 친숙한 동물로서 일찍이 그림의 주제로 등장했다. 서양 그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라스코 동굴벽화(구석기)에 표현된 동물 역시 말을 소재로 한 그림이 들소나 사슴에 비해 가장 많이 그려졌다.¹³⁾ 한국의 경우도 고구려 고분벽화 풍속계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소재였다. 특히 황해남도 재령강 유력 유설리에 위치한 안악3호분의 회랑 동벽과 북벽은 말과 사람으로 가득하다. 일렬 주차하듯이 정렬된 모습

과 투구, 마갑을 완벽히 갖춘 말의 모습은 물론이고 여물 먹는 말의 그림은 사실적인 생활상을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다. 이와 더불어 평안남도 대안시 무학산에 위치한 덕흥리 고분 전실 동서남북의 벽에서 모두 말 그림이 확인된다. 동벽(東壁)은 넓은 가로 줄무늬와 가는 세로 줄무늬로 표현된 마갑을 두른 말이 정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실(玄室) 서벽(西壁)은 1655년 사행의 수행화원인 한시각의 <북새선은도(北塞宣恩圖)> (1664)의 화재(畫材)인 함경도 무과 실기시험과 같이 마상궁술(馬上弓術)을 보여주고 있다.

13) 홍선표, 『고대 동아시아의 말그림』(마문화연구총서IV), 시공사, 2001, 18쪽.

북벽(北壁)은 신라 천마총 출토 천마도(天馬圖, 국보207호)와 같이 하늘을 날고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신마(神馬)의 날개를 장착하고 있다.¹⁴⁾ 덕흥리 고분은 세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형태를 지닌 그림으로, 프랑스 화가 장 드뷔페(Jean Dubuffet, 1901~1985)가 표현한 바, 다듬지 않고 날 것 그대로를 표현한 아르브뤼(Art Brut : 原生美術)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졌다.¹⁵⁾ 조선의 말 그림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탄 여덟 필의 준마 <팔준도(八駿圖): 태평시대를 이루길 기원>를 시작으로 윤두서(尹斗緒, 1668~1715) 부자의 그림이 잘 알려져 있다.¹⁶⁾ 윤두서의 말 그림은 아들 윤덕희(尹德熙, 1685~1776)가 1719년 화첩으로 꾸민《해남 윤씨 가전 고화첩(海南尹氏家傳古畫帖)》내의 <유하백마도(柳下白馬圖)>(해남 윤영선 소장, 보물 제481호)이 유명하고 아들 덕희의 말 그림은 수묵담채로 담담히 그려낸 <어자조마(馭者調馬)>(간송미술관 소장)가 있다. 윤두서의 <유하백마도>는 이기룡의 말 그림처럼 소나무 아래 호랑이, 일명 ‘송하호도’의 구도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소나무 아래 호랑이 그림은 김홍도(金弘道, 1745~?)가 대표적으로 유명하고 조선통신사 수행원 변박(1763)과 마지막 수행화원 이의양(1811)의 작품이 있으며 이후 이성린(1748)의 손자 이수민(李壽民, 1783~1839)과 유숙(劉淑, 1827~1873) 등의 작품을 통해 알려져 있는 작품구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이후 민화로 이어졌고 소나무와 호랑이에 이어 까치까지 가세하여 그려졌다. 그런데 이 구도는 소나무에만 적용되지 않고 대나무에도 동일한 양식으로 그려졌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일

14) 홍선표, 위의 책, 2001, 199~243쪽.

15) 정금희,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 회화에 있어서 아동미술의 한 양상」 『한국프랑스학 논집』 58, 2007, 3쪽, 11~13쪽.

16) <팔준도>에 관한 본격적 연구로는 정병모, 「국립중앙박물관소장 <팔준도>」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1991, 3~26쪽이 있다.

본으로 유입된 그림으로 인해 일본 측의 수요가 상승하자 조선의 그림이 수출용으로 제작되었고 소나무 아래 호랑이와 동일한 구도로 대나무 아래 호랑이가 다수 수출되었다. 대표적인 작가는 작품 속 간략한 호(號)만 남긴 해옹(海翁), 석산(石山) 등이 있다. 호랑이 보다 친숙한 말은 소나무가 아닌 버드나무가 소재로 등장한다. 그러나 마도는 호도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18~19세기 보다 앞선 17~18세기의 양식이다. 소나무 아래 호랑이를 인지하는 구도는 버드나무 아래 말 그림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버드나무 아래 말, 즉 유하마도는 윤두서가 태어나기전인 1643년 이기룡의 <야마도>에서 먼저 나타난다. 조선통신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말 그림은 이기룡 외에도 변박을 들 수 있다. 다카마쓰시(高松市) 호넨지(法然寺) 소장 변박의 <유마도(柳馬圖)>는 사행 이후 1779년(정조3) 여름 동래부에서 제작하여 일본으로 유입된 작품이다. 이 그림은 소장처에서 보관중인 오동나무상자 위 기록된 <유마도>가 아닌 <유하마도(柳下馬圖)>로 알려져 있다.¹⁷⁾ 사행 이후 일본측의 요청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 화면에는 ‘세기해초하(歲己亥初夏) 동화술재사(東華述齋寫)’와 ‘술재(述齋)’라는 글자와 도장이 찍혀 있다. 변박의 작품이 현존하지만 수행화원에 의해 제작되어 사행 시 일본에 남은 작품은 이기룡의 <야마도>가 유일하다.

이 그림은 조선 중기의 천문학자로 알려진 박안기(朴安期, 1608~?)의 화제가 쓰여 있다. 그가 쓴 거친 화제는 “한 마리는 울고, 한 마리는 달리려한다. 향기로운 풀밭 위요, 버드나무 강변이라. 어찌 말에 올라 멀리 변방으로 달려갈거나, 월지국을 정벌코자 금빛 안장을 엮어본다.”¹⁸⁾ 박안기는 1643년 조선통신사 일행 462명 가운데 네 번째 고위

17) 조선통신사유네스코기록유산 한국추진위원회 학술위원 강남주 위원장과의 인터뷰 (2017.1.31).

18) 경성대학교 한문학과 김철범교수님 번역.

직인 독축관(讀祝官)으로 일본에 간 인물이다. 사행활동 시 일본 천문학자에게 ‘칠정산(七政算)’을 가르쳐 주었고, 이후 일본인에 의한 일본 최초의 천문계산법이 만들어졌다.¹⁹⁾ 박안기의 화제는 버드나무와 두필의 말을 연결 짓는 배치가 감각적이다. 그런데 평온한 그림 위로 쓰인 화제로는 낯선 느낌이다. 국내에서의 활동은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은 박안기의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시 그림을 살펴보면, 화면 위를 가득 메운 버드나무와 화면 아래의 말 두필로 대칭된다. 버드나무 잎은 사뿐히 걷는 말의 긴 목을 타고 내려온 갈기를 닮아있고 버드나무 양쪽 가지 역시 백마와 움츠린 흑마를 형상화했다. 백마는 자신을 닮은 버드나무가 반가운 것인지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머리를 젖혀 버드나무 잎을 올려다보고 있고 잔가지가 많은 버드나무 아래의 점무늬 흑마는 엄마 품을 이제 떠나는 어린이 이 마냥 슬픔에 젖어 있는 모습이다. 화제의 내용과는 다르게 그림 속 풍경은 부드럽러워 보인다. 말 그림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단순한 말의 형상을 그림에 옮겨 놓은 것이 아닌 말과 관련된 사람의 권위나 인격 등을 나타내거나 혹은 하늘을 나는 신마의 의미를 지니고²⁰⁾ 일본 또한 신격화된 말 그림을 회마전(繪馬殿), 즉 ‘에마’라 칭하며 말의 화상을 그려서 신사 또는 불당에 봉납하여 액자로 보관을 했다. 일종의 말을 모시는 신사로 볼 수 있는데 조선통신사의 마상재가 일본사행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마상재가 일본에 처음 간 것은 인조 13년(1635)이다. 이 이후로 통신사행에는 마상재가 반드시 끼어 모두 8회에 걸쳐 파견되었는데, 통신사와 관계없이 2회, 통신사 수행으로 6회 파견되었다. 이기룡의 또 다른 유작으로 채색화로 제작된 <누각

19) 『羅山林先生文集』, 平安考古學會, 1921

20) 정병모, 앞의 논문, 1991, 3~5쪽.

인물도(樓閣人物圖)>가 있다.

이처럼 이기룡의 작품은 선화(線畫)를 그려 남긴 김명국과는 달리 선화 한 점을 전하지 않는다. 이 점은 두 명의 화원의 역할과 활동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점이다. 더불어 수행화원으로서 일본 측 구청(求請)에 응하는 그림을 그려 남긴 김명국은 그의 활동 이력이 고스란히 『해행총재』를 비롯한 기록물에 전하는 반면, 이기룡의 활동은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정묘호란(인조 5)과 병자호란(인조 14)을 겪은 조선이 대외활동에서 상대국의 군사정보를 그림으로 기록하고자 했던 바를 이기룡이 비밀리에 수행했던 바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추측은 이기룡이, 이홍규를 이은 화원가문인 점과 사행 이전 1638년 『인조장렬후가례반차도』를 제작하는 데 인조가 아꼈던 이징(李澄, 1581~?)과 함께 참여한 점 등에서 미뤄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추후 깊게 연구해보겠다.

IV. 사행 이후 행적 및 활동

이기룡은 물론이고 통신사의 수행화원으로서 중대한 임무와 역할을 완수했던 화원 이기룡은 귀국 후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화서 내부에서나 화원으로서 그의 입지는 포상의 차원에 머물렀다고 보지는 않는다. 본래 그의 실력도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지만, 수행화원으로서의 활동은 많은 화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사행 이후 수행화원 이기룡의 활동과 입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사행 이후 이기룡의 국내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포착되는데, 하나는 의궤제작을 중심으로 한 도화서 내부에서의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중심으로 화원 가문의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통신사 수행화원으로서의 활약 이후 확고해진 자신들의 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먼저 이기룡의 공적 국내활동인 의궤참여 기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이기룡의 공적 국내활동-의궤참여 기록

년도	의궤명	목차 1	목차 2	내용
1631	宣祖穆陵 遷葬山陵 都監儀軌	同日山陵都 監儀軌事目		1608년(광해군 즉위)에 동구릉(東九陵)의 건원릉(健元陵) 서쪽 언덕에 매장했던 선조(宣祖, 1552~1608, 재위 1567~1608)의 목릉(穆陵)을 1630년(인조 8)에 건원릉 제2강(第二岡)으로 옮긴 것을 기록한 의궤.
1638	仁祖莊烈 王后嘉禮 都監儀軌	三房玉冊色	十一月 二十日	1638년(인조 16) 10월부터 12월까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仁祖, 1595~1649, 재위 1623~1649)와 계비(繼妃)인 장렬왕후 조씨(莊烈王后 趙氏, 1624~1688)의 가례(嘉禮) 과정을 기록한 의궤.
	仁祖莊烈 王后嘉禮 都監儀軌	一房 鋪陳色	實入秩	
1645	昭顯世子 禮葬都監 儀軌	禮葬都監一 房儀軌	工匠秩	1645년(인조 23) 4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거행되었던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의 예장(禮葬)에 관한 기록.
	昭顯世子 殯宮魂宮 都監儀軌	魂宮造成所	[工匠 秩]	1645년(인조 23) 4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 장례(葬禮) 때의 빈궁(殯宮) 및 혼궁(魂宮)의 마련에 관한 기록.
1659	孝宗殯殿 都監儀軌	魂殿二房	諸色工 匠秩	1659년(현종즉위) 효종(孝宗, 1619~1659, 재위 1649~1659)이 승하함에 따라 시신을 봉안하는 빈전(殯殿)과 신주를 봉안하는 혼전(魂殿)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일을 기록한 의궤.

년도	의례명	목차 1	목차 2	내용
1661	莊烈王后 仁宣王后 尊崇都監 儀軌	來關秩	諸色工 匠秩	1661년(현종 2) 인조(仁祖)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莊烈王后 趙氏, 1624~1688)에게 둘째 존호(尊號)를, 효종(孝宗)의 비 인선왕후 장씨(仁宣王后 張氏, 1618~1674)에게 존호를 올린 과정과 절차를 기록한 책.
	孝宗祔廟 都監儀軌	一房儀軌	諸色匠 人秩	1661년(현종2) 효종(孝宗, 1619~1659, 재위 1649~1659)의 국상을 마치고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과정을 기록한 의례.
	明聖王后 冊禮都監 儀軌	一房儀軌	諸色工 匠秩	1661년(현종 2) 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 金氏, 1642~1683)를 세자빈(世子嬪)에서 현종(顯宗)의 비(妃)로 책봉하는 과정을 기록한 의례.
	別三房 儀軌	[工匠秩]	工匠秩	1661년(현종 2) 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 金氏, 1642~1683)를 세자빈(世子嬪)에서 현종(顯宗)의 비로 책봉할 때 별삼방(別三房)의 업무를 기록한 의례.

위의 <표 2>와 같이 이기룡의 의례 제작 참여는 총 10회로 모두 어람용 의례에서 그의 이름이 확인된다. 사행 이전 확인되는 의례 활동은 2회로 그의 나이 32세에 처음 확인된다. 동급의 다른 화원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1631년의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례(宣祖穆陵遷葬山陵都監儀軌)』 제작에 참여한 것을 시발(始發)로, 7년 뒤인 1638년 참여한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례』에서는 일방과 삼방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작품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의례 몇 점을 살펴보겠다.

1608년(광해군 즉위)에 동구릉(東九陵)의 건원릉(健元陵) 서쪽 언덕에 매장했던 선조(宣祖, 1552~1608, 재위 1567~1608)의 목릉(穆陵)을

<그림 3> 어람용 『宣祖穆陵遷葬山陵都監儀軌』 필사본 1책 239장,
1631년(인조9), 초주지, 도설채색, 52.0×36.0×6.5cm.



3-1 표지



3-2



3-3



3-4



3-5



3-6

1630년(인조 8)에 건원릉 제2강(第二岡)으로 옮긴 것을 기록한 의궤이다. 이 의궤는 표지 부분에 낙서가 있고 그 위에 ‘목릉천장의(穆陵遷葬儀)’라는 서명이 쓰여져 있고, 본문 앞쪽에는 채색한 용가도(甕家圖)와 찬궁(欖宮)에 붙이는 사신도(四神圖)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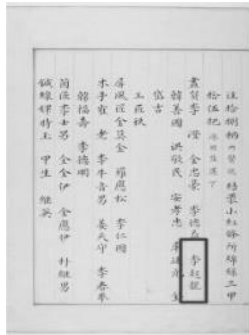
현존하는 유작이 드문 이기룡의 작품은 1631년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에서 여실히 보인다. 특히 <청룡>, <백호>, <주작>, <현무> 4면의 그림들은 오롯이 이기룡의 작품으로 이 의궤에 기록된 화원은 1명

으로 그의 이름이 전부이다. 기존의 관례에 따라 정형화된 사신도의 틀에 맞춰 그려졌지만 표현된 사신도는 섬세하고 안정적인 필력과 공간감 활용이 뛰어난 그림이다. 청룡과 함께 하늘을 승천할 것 같은 백호의 등세와 눈빛 그리고 치밀한 뱀가죽과 거북이의 등 질감을 치밀하게 묘사하였다. 4면의 그림은 도설로 반차도는 아니지만 반차도 이상의 기운을 지닌 그림으로 그려내었다.

<그림 4> 어람옹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필사본 1책 193장,
1638년(인조16), 초주지, 47.2×31.9×5.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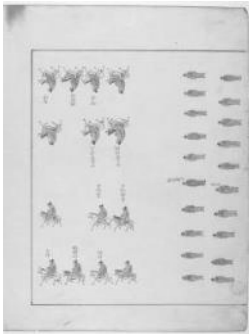
4-1 표지



4-2 이기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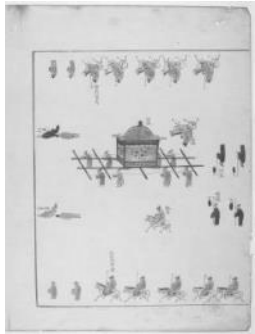
4-3 반차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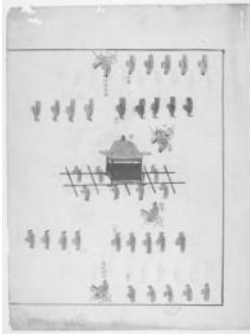
4-3 반차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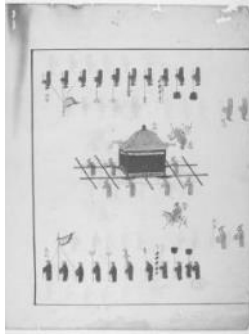
4-3 반차도3



4-3 반차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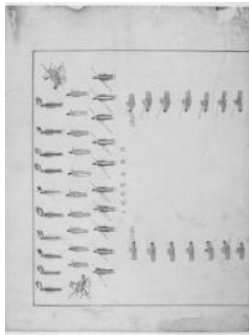
4-3 반차도5



4-3 반차도6



4-3 반차도7



4-3 반차도8

1638년(인조 16) 10월부터 12월까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仁祖, 1595~1649, 재위 1623~1649)와 계비(繼妃)인 장렬왕후 조씨(莊烈王后 趙氏, 1624~1688)의 가례(嘉禮)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이 의궤는 권 수 구분없이 1책으로, 표지를 포함해 총 396면이다. 이 중 도설(圖說)이 9면(채색), 반차도(班次圖)가 8면(채색)이다. 앞뒷면에 약간 불에 그을 린 흔적은 있으나, 대체로 양호하다.

<그림 5> 어람용 『昭顯世子禮葬都監儀軌』 필사본 1책 270장,
1645년(인조23), 초주지, 46.2×32.3×7.5cm.



5-1



5-2 이기룡



5-3 반차도1



5-3 반차도2



5-3 반차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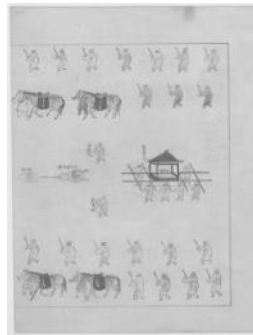
5-3 반차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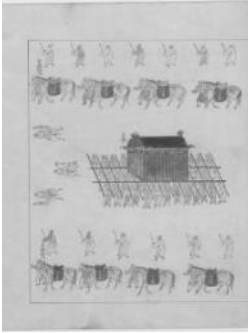
5-3 반차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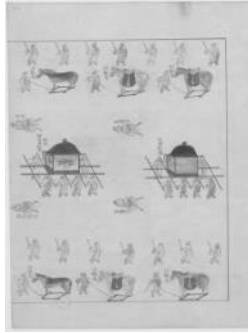
5-3 반차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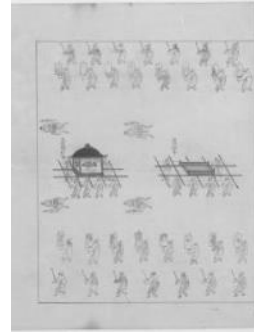
5-3 반차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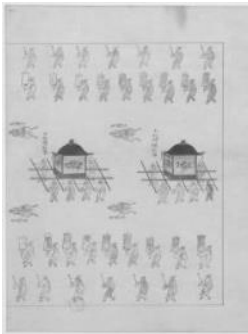
5-2 반차도8



5-3 반차도9



5-3 반차도10



3 반차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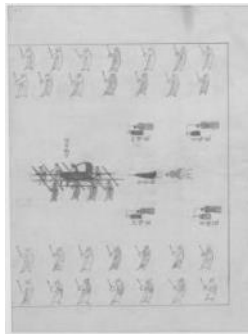
5-3 반차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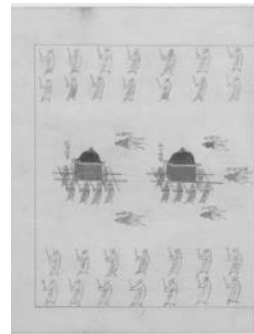
5-3 반차도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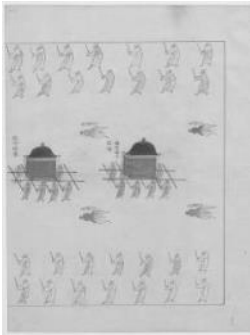
5-3 반차도14



5-3 반차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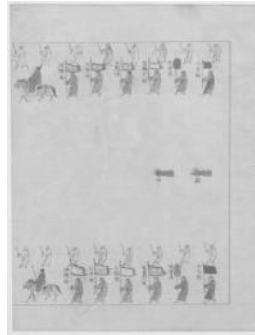
5-3 반차도16



5-3 반차도17



5-3 반차도18



5-3 반차도19



5-3 반차도20



5-3 반차도21



5-3 반차도22

이기룡이 사행 이후 참여한 첫 번째 의궤는 『소현세자예장도감의궤』이다. 이 의궤는 1645년 4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거행되었던 소현세자의 예장(禮葬)에 관한 기록을 담은 의궤이며, 이기룡이 그의 부친 이흥규와 함께 참여한 유일한 의궤이기도 하다. 78세 고령의 나이임에도 활동한 부친 이흥규는 삼방소속으로 아들 이기룡은 일방소속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인 1645년 『소현세자빈궁훈궁도감의궤(昭顯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에도 참여하였다.

그림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의궤는 1645년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다. 그러나 1659년 『효종빈전도감의궤(孝宗殯殿都監儀軌)』, 1661년 『장렬왕후인선왕후존숭도감의궤(莊烈王后仁宣王后尊崇都監儀軌)』, 『효종부묘도감의궤(孝宗祔廟都監儀軌)』, 『명성왕후책례도감의궤(明聖王后冊禮都監儀軌)』, 『별삼방의궤(別三房儀軌)』에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그의 나이 62세때인 1661년에는 무려4회나 의궤제작에 참여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아 44세에 다녀온 계미사행은 왕성한 활동을 짐작하게 한다. 이기룡과 같이 사행 이전보다 사행 이후 활동이 활발한 경우는 1682년 통신사행 수행회원 함제건을 제외하고는 모두에 해당된다.²¹⁾ 이런 현상은 화원을 세습한 회원가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임진년 전쟁 이후 조·일간 교류를 위해 파견된 조선통신사, 그 중에서도 문화적 교류의 중심에 있었던 계미사행의 회원 이기룡

21) 수행회원의 사행 전후 의궤제작 참여 기록 횟수

畫員名	사행 전 횟수	사행 후 횟수
李弘糾: 丁未使行(1607)	1	10
柳成業: 丁巳使行(1617)	1	6
李彥弘: 甲子使行(1624)	4	4
金明國: 癸未使行(1643)	3	12
李起龍: 癸未使行(1643)	5	6
韓時覺: 乙未使行(1655)	5	16
咸梯健: 壬戌使行(1682)	11	1
朴東普: 辛卯使行(1711)	1	2
咸世輝: 己亥使行(1719)	2	16
李聖麟: 戊辰使行(1748)	1	3
金有聲: 癸未使行(1763)	0	0
李義養: 辛未使行(1811)	2	4

에 관해 살펴보았다. 조선사회의 성격상 화원에 대한 기록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지만, 현전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기룡의 행적을 재구성해 보았다. 즉 그의 행적 가운데 통신사의 수행화원으로 활약한 것을 핵심으로 두고, 사행 이전의 행적과 사행 이후의 행적을 함께 살펴본 것이다.

사행 때 남긴 <야마도>는 사전 제작하여 파견 당시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지만, 동(同) 사행 때 선화를 그려 남긴 김명국과는 달리 선화한 점이 전하지 않는다. 한편, 야마도는 버드나무 아래 말 두 필이 그려진 그림으로 구도는 조선중기 말 그림의 대표적 인물 윤두서보다도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다. <야마도>가 지닌 구도는 말에서 호랑이로 버드나무에서 소나무로 이어졌고 조선후기 유행한 소나무 아래 호랑이 구도로 유연하게 변형되었다. 이기룡의 <야마도>와 더불어 조선통신사를 통해 일본에 유입된 호랑이는 <야마도>와 같은 대나무 아래 구성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근래 2012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중심부에 있는 에도막부의 성, 나고야성(名古屋城)박물관에서 나고야성 개관 400주년 기념으로 특별전 <무인 가문의 장벽화, 호도(武家と玄關 虎の美術)>를 개최했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유입된 호랑이 그림은 문과 벽을 장식하는 장벽화로 탄생했고 화려한 금박과 대나무 아래 호랑이 그림이 인상적인 전시였다. 이 외에도 최근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한·일 공동등재를 앞두고 일본과 한국에서 다양한 전시가 기획되었다. 2013년 일본 고려미술관에서 개최한 <조선통신사와 교토(朝鮮通信使と京都)>에 이어 2015년 국립고궁박물관의 <그림으로 본 조선통신사>의 작은 전시, 2015년 부산박물관에서 개최한 기획전 <조선시대 조선통신사와 부산>, 그리고 2016년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 <[유네스코 서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기념] 조선통신사, 세계인의 품으로> 등이다. 소나무 혹은 대나무 아래 호랑이를 그린 호도 그림은

부산박물관 특별전에서 해옹의 작품을 대표적으로 공개했고 동일 구도의 버드나무 아래 말을 그린 이기룡의 <야마도>는 고려미술관 전시에서 선보인 바 있다.²²⁾ 이는 나무아래 동물, <야마도>의 선구자적인 구도와 측면과 정면을 혼용한 <남지기로회도>의 구성미는 화가 이기룡의 재발견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작품조차 소략한 이기룡은 <남지기로회도>와 <야마도>외 국내의 공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의궤를 중심으로 그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 점은 두 명의 회원의 역할과 활동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점이다. 수행화원으로서 일본 측 구청에 응하는 그림을 그려 남긴 김명국은 그의 활동 이력이 고스란히 『해행총제』를 비롯한 기록물에 전하는 반면 이기룡의 활동은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정묘호란(인조5)과 병자호란(인조14)을 겪은 조선이 대외활동에서 상대국의 군사정보를 그림으로 기록하고자 했던 바를 이기룡이 비밀리에 수행했던 바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추측은 이기룡이, 이홍규를 이은 회원가문인 점과 사행 이전 1638년 『인조장렬후가례반차도』를 제작하는 데 인조가 아꼈던 이징(李澄, 1581~?)과 함께 참여한 점 등에서 미뤄볼 수 있다. 사행이후 활동이 사행이전보다 활발하게 나타난다. 의궤는 국가행사의 중요한 기록이므로, 의궤제작에는 도화서 내의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차출되었다. 이기룡의 사행 이전과 사행 이후의 의궤제작참여를 도표로 정리하고, 특히 사행 이전과 이후의 수치비교를 통해 사행활동이 이들 회원의 활약에 미친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사행활동을 통해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키운 회원들은 자신의 가문을 더욱 큰 회원가문으로 확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회원

22) 名護屋城 개관 400周年 紀念 特別展 <武家と玄關 虎の美術>, 2012. 高麗美術館 特別展 <朝鮮通信使と京都>, 2013. 국립고궁박물관, <그림으로 본 조선통신사>, 2015. 부산박물관 기획전 <조선시대 조선통신사와 부산>, 2015.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 <유네스코 서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기념 조선통신사, 세계인의 품으로>, 2016.

가문의 형성되는 것은 15세기 이전부터 나타나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17세기 이후에 비롯된다고 보는데, 이 시기는 대체로 통신사행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다. 통신사 수행화원 가운데 화원집안의 인맥과 혈족으로 선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수도 7명 정도 된다. 이처럼 화원가문의 확장과 성장에는 통신사행의 화원으로 활동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아직 개인적 이력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화원들의 생애를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宣祖穆陵遷葬山陵都監儀軌』
-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 『昭顯世子禮葬都監儀軌』
- 『昭顯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 『孝宗殯殿都監儀軌』
- 『莊烈王后仁宣王后尊崇都監儀軌』
- 『孝宗祔廟都監儀軌』
- 『明聖王后冊禮都監儀軌』
- 『別三房儀軌』
- 『春官志』 卷2
- 趙曦, 『海槎日記』
- 丁若鏞, 『茶山詩文集』 2卷.
- 『羅山林先生文集』, 平安考古學會, 1921.
- 吳世昌, 『槿域書畫徵』, 시공사, 1998.
- 『芥子園畫譜』
- 『海南尹氏家傳古畫帖』

2. 저서

- 중앙일보사, 『한국의 미-山水畫(上)』, 중앙일보사, 1985.
안휘준, 『韓國繪畫史研究』, 시공사, 2000.
임동권, 『通信使와 文化전파-당인과 제례행렬을 중심으로』, 민속원, 2004.
송희경, 『조선 후기 아회도』, 다할미디어, 2008.
홍선표, 『고대 동아시아의 말그림』(마문화연구총서IV), 시공사, 2001.

3. 논문

- 권혜은, 「朝鮮後期《槎路勝區圖畫集》의 作者와 畫風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김나영, 「서양 김유성의 회화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서윤정, 「1764년 通信使의 繪畫活動과 그 交流」,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2005.
유근형, 「朝鮮時代 南畫가 近代美術에 미친 영향에 대한 研究」,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건상,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 雪灘 韓時覺의 實景山水畫」, 國立中央博物館, 1993.
이경화, 「北塞宣恩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254, 한국미술사학회, 2007.
이정은, 「朝鮮通信使 隨行畫員 研究」,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_____, 「金明國의 丙子·癸未通信使行 활동작품 분석」, 『인문논총』27,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_____, 「乙未通信使行 隨行畫員 韓時覺의 行蹟 및 活動」, 『조선통신사연구』12, 2011.
_____, 「정미사행을 전후한 화원 이홍규의 행적 및 활동」, 『문물연구』제28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5.
이태호, 「韓時覺의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 ; 정선 眞景山水의 先例로서 17세기의 實景圖」, 『精神文化研究』 3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이현주, 「한류의 시초 : 朝鮮通信使 隨行畫員 李聖麟의 사로승구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 2008.
위순선, 「다니 분초[谷文晁](1763~1840)를 做한 이의양의 산수화」, 『조선통신사연구』 19, 조선통신사학회, 2015.
안휘준, 「朝鮮時代의 畫員」 『韓國文化』 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9.

- 정병모, 『국립중앙박물관소장 <팔준도>』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한국 미술사학회, 1991.
- 정은주, 『계미(1763)통신사행의 화원 활동 연구』 『정신문화연구』 34권 2호 통권123호, 2011.
- _____, 『19世紀 初 對淸使行과 燕行圖: <<李信園寫生帖>>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3, 명청사학회, 2015.
- _____,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 교류』 『동아시아 문화연구』 6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 홍선표, 『조선후기 通信使 隨行畫員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 205, 한국미술사학회, 1995.
- _____,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활동』 『미술사논단』 6, 한국미술연구소, 1998.
- 황은영, 『1811년 신말통신사 수행화원 이의양에 대하여』 『강원사학』 22-23, 2008.

4. 도록

-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通信使』, 삼화출판사, 1986.
-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교코쿠지 지쇼인 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 도록시리즈VI, 2008.
- 중앙일보사, 한국의 미-『山水畫(上)』, 1985.
- 국립고궁박물관, 『그림으로 본 조선통신사』, 2015.
- 부산박물관 기획전, 『조선시대 조선통신사와 부산』, 2015.
-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기념]조선통신사, 세계인의 품으로』, 2016.
- 名護屋城 開館 400周年 紀念 特別展, 『武家と玄關 虎の美術』, 2012.
- 高麗美術館 特別展, 『朝鮮通信使と京都』, 2013.

투고일: 2016.10.17. 심사완료일: 2016.11.22. 게재 확정일: 2016.12.07.

| Abstract |

Behavior and Activities of Painter Lee Gi-ryong
before and after Gyemisahaeng

Lee, Jeong-Eun

Painter Lee Gi-ryong (李起龍, 1600~) is an entourage painter of Gyemisahaeng (癸未使行, 1643). Gyemisahaeng was a journey in which there was a change in the role and position of the entourage painters as Japan's demand for Joseon paintings or paintings of entourage painters increased. In fact, since Gyemisahaeng, the nature of the envoys was strengthened as a cultural delegation rather than a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 When studying Joseon Envoys in terms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Japan,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role and performance of the entourage painters. Nonetheless, Lee Gi-ryong's journey records as well as the record of his domestic activities were negligent and studies on him were not fully conducted. In this paper, this study reviewed pre- and post-activities of Gyemisahaeng focusing on Lee Gi-ryong's Gyemisahaeng activities.

When Lee Gi-ryong was dispatched to Gyemisahaeng following the Byeongja journey, line drawing was an art trend in Japanese painting circles. Due to line drawing, unlike Kim Myeong-guk who joined Gyemisahaeng following Byeongja journey, there are no known works of Lee Gi-ryong' line drawing. Unlike Kim Myeong-guk, who left a line drawing, Lee Gi-ryong did not leave a piece of a line drawing, which suggests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two painters dispatched. As an entourage painter, Kim Myeong-guk, who had

drawn pictures to respond to the request of the Japanese side, conveyed his activity history through the records while it is difficult to find Lee Gi-ryong's activities. It is thought that Joseon undergoing Jeongmyohoran (Injo 5) and Byeongjahoran (Injo 14) was supposed to try to record the military information of the other country in the diplomatic activities and this mission may have been given to Lee Gi-ryong.

He was a painter who represented Joseon in a public position rather than as an individual painter, and his performance has been evaluated within such a category. As an entourage painter, Lee Gi-ryong whose personal works do not exist, was studied by extending the category of Painter Lee Gi-ryong's activities further, to examine his inner and outer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entourage painter by looking into his family background and his activities in Dohwaseo.

Keywords: Lee Gi-ryong, Gyemisahaeng, Joseon Envoys, entourage painter, Dohwaseo, Uigwe, Lee Hong-gyu, Kim Myeong-guk

